

한라시론



유 동 형
진로·취업컨설팅 편편잡 대표

요즘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다. ‘가족이 함께하는 내 집 짓기’란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이전에 지자체 주관으로 실시했던 것인데, 현재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빠와 엄마에게는 내 집 마련과 집 짓는 기술, 자녀에게는 현장체험을 통한 진로탐색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함께하는 작업과정을 통해서 가족의 연대감도 강화할 수 있는 건축힐링 상담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집짓기=내 집 마련+자녀 진로교육+가족

가족이 함께하는 내 집 짓기

상담+건축기술 습득’이다. 집 짓는 한 가지 행위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했다. 집 짓는 과정에서 난이도가 있는 부분은 전문가들이 작업하고, 쉬운 작업은 아빠, 엄마, 자녀들이 능력대로 나누어서 진행했다. 진행하면서 건축주인 아빠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걸 아마도 가장으로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갈망이 제일 크기 때문이라고 본다. 엄마는 간식같은 지원뿐만 아니라, 주부의 생활 편리성을 고려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한다. 남편들보다는 아내들이 주로 살림을 하기 때문에 이런 편리성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많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다. 집 짓는 현장을 처음 경험하기도 하고 몸으로 일하기 때문에 힘

들어했다. 하지만 현장에 대해서 점점 친숙해지고, 기술도 조금 배우고, 본인이 일한 결과물이 눈에 보이면서 서서히 동기부여가 됐다. 남편과 아내에게는 집 짓는 기술 교육이 이루어지며, 집을 짓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 팁들을 알려줬다. 아이들과 같이 작업을 할 때는 특히 안전에 대해서 강조했다. 초기에는 쉬운 건축기술 중심으로 교육하고, 후에는 자녀들의 진로에 대한 내용들을 집 짓는 시간 짬짬이 지도를 했다. ‘직업은 왜 가져야 하는가?’ ‘공부는 왜 해야 하는가?’ ‘나의 재능은 무엇일까?’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했다. 몇 개월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빠는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집 관리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웠고, 아이들은 진로를

정하는 도움을 받았다. ‘집 짓는 일 좀 해보니 몸 쓰는 일은 내 체질이 아니네요.’, ‘난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빨리 학교 가고 싶어요.’, ‘일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건축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고요.’ 등과 같은 말들을 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당장, 명쾌하게, 진로를 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볼 기회, 직업에 대한 심층적 안목을 제공해줬다. 집을 지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족들끼리 함께 짓는 내 집 짓기를 해 볼 것을 권한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진로, 정서적 측면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설

‘방만경영’ 지방공기관 평가, 제대로 하자

도내 공공기관들이 재정악화로 ‘방만경영’이란 질타를 받아온 지 오래다.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사업수입 증가를 커녕 국가·도 지원금에다 대행사업비(지자체사업 대행비용)에 의존, 재정악화를 키웠을 현실이다. 도를 넘는 방만경영에도 경영자 책임이나 경영혁신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게 더 문제다. 현 시점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혁신 작업이 추진되는 건 당연하다. 지방공기관 경영혁신은 지난 10월 ‘2022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에 이어 11월 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강화된 경영평가 계획 확정으로 본격 시행된다. 도는 이번에 경영평가 체계 대폭 개편, 경영평가 결과에 의한 책임경영 엄정 적용 방침을 세웠다. 경영평가는 상위등급 비율 40% 제한, 평가과제에 대한 도전성

가중평가 등을 담았다. 기관장 성과평가는 성과계약 실적과 책임경영 비중을 강화했다. 경영평가 도민참여단도 운영된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도 새 경영평가 계획 및 기관장 성과계약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고, 평가결과를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누군가 웃었고, 어느 기관이 퇴출되는 사례도 피해선 안된다. 경영평가 혁신이 제대로 작동되고, ‘일벌백제’로 가야 한다. 그러려면 평가원칙을 엄격 적용하고, 평가결과를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누군가 웃었고, 어느 기관이 퇴출되는 사례도 피해선 안된다.

단순 사건으로 ‘여성폭력’ 다뤄선 안된다

여성폭력이 의외로 적잖게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광범위하다. 성폭력을 비롯해 가정폭력, 데이브폭력, 스토킹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문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단순한 폭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경찰이 여성폭력을 대상으로 강력 대처에 나섰다. 제주경찰이 종결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여성폭력 사건도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수사가 진행되거나 신변보호가 진행중인 여성폭력 사건 570건에 대한 ‘특별전수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구속영장 청구 3건, 현행범 체포 1건, 스토킹 잠정조치(유치장 유치 등) 4건, 가정폭력 임시조치(분리 등) 2건 등이 이뤄졌다. 타 사례를 보면 지속적으로 피해자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40대가 구속 송치됐

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경찰 직권으로 주거지 및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조치를 했다. 제주경찰이 여성폭력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해 기대된다. 올해부터 여성폭력 위험성 정도에 따라 직접 개입·판단하는 ‘민감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여성폭력이 끔찍한 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들이 있었는가. 지난해 7월 제주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잔인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임 고기철 제주경찰청장도 지난해 12월 취임하자마자 1호 정책으로 ‘여성폭력 대응’을 밝혔다. ‘여성이 해자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40대가 구속 송치됐

편집국 25시

불청객이 찾아왔다



강 다 혜
정치부 기자
dhkang@ihalla.com

노트와 펜을 챙겨 핸드폰을 꺼낸다. 통화연결음이 들리면 심장도 멎달아 달경거린다. 자리에 없으면 어쩌나, 뭘 먼저 물어볼까... “안녕하세요 000기자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까지 반응은 가지각색이다. 매일 취재를 하며 늘 낯선 사람과 전화를 하지만 곧 들려를 목소리에 늘 긴장이 든다.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에 머리가 하얘지거나, 오늘 쓰려고 구상했던 기사를 아예 망치면 어쩌나. 웬만한 호연지기는 타고나지 못했는지 기자 생활을 하며 마주하는 어

려운 상황들이 있다. 취재를 목적으로 전화할 때가 대표적이다. 전화를 끊고 나선 짹짹한 기분도 든다. 상대에게 성가신 존재가 된 것 같아서다. 기자의 전화가 수신자에겐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에 가까울 것이고, 얼굴 한 번 적 없으면서 상황과 내용을 알려 달라 하니 전화를 받는 입장에서 통명스럽게 나온다 해도 감수해야 할 일이다. 짐 달는 게 싫어 부탁할 일을 만들지 말자는 신조로 살아가고 있지만, 방어적으로 나올 것을 알면서도 달려들어야 하는 이 직업이 가혹하게 느껴진 적도 많다. 그럼에도 이 일을 위해 무리하게 천성을 바꾸진 않았다. 나에겐 일이 곧 공부다. 세상에 더 궁금함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공부하는 이어져야 한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볼 수 있다면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개별 기자가 바라는 세상은 무궁무진하다. 취재거리를 단순히 만들어내는 뾰족까지 기자가 아니더라도. 수년 뒤 나는 지금의 기자생활을 어떻게 기억할까? 하루하루가 귀하고 소중하다.

뉴스-in

‘한라산 입장권’ 거래 시 1년간 입산 금지

QR코드 거래 방지대책 발표

“문예재단 불공정 승진 강행”

○...입장권이라는 이름으로 한라산국립공원 탐방 예약 QR코드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돼 논란이 되자 제주도가 12일 타인 명의 QR코드 이용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1년간 한라산 입산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방지대책을 발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16년 12월 이후 5년여 만에 시행 예정인 승진 인사와 관련 후보에 오른 직원들이 “불공정 승진 인사를 강행한다”며 규탄.

제주특별자치도는 탐방예약제 QR코드 거래를 시도하다 적발되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1년간 입산을 금지하는 한편, 온라인 매매 행위가 실제 적발될 경우 법무당국, 자치경찰단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공정한 승진 인사를 바라는 승진 후보자’ 7인은 12일 입장문에서 승진 소요 최저 연수기준과 인사평가 평정 기간 불일치에 따른 승진 후보자 서열이 바뀔 수 있는 문제 등을 지적했고 이를 제주도감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익 제보.

이밖에 탐방 예약 QR코드 사용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장에 서 신분 확인도 강화, 이상민기자

이들은 “이번 승진 인사에 따른 문제와 쟁점을 인사부서에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문제 없다는 답변만 기계적으로 반복했다”며 “이사장 임기 말기 특정 직원들을 위한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고 주장. 전선희기자

상속한정승인 공고

•성 명 : 망 변창홍(1959. 2. 7생)
•최후주소 : 제주시 노연로 87, 지하2층 (연동)

상기자는 2021년 10월 29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2년 1월 5일 제주지방법원 2021나단188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만법 제1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제주시 칠대로동길 24, 214동 106호 (월광동, JDC제주첨단리슈빌)
2022년 1월 13일

공고인 (상속한정승인자) 김연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품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 선월2리 용암동동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병의·신들림 증세로 고생하시는 분

상담환영

◆전화·대면상담 무료
◆병의천도 최고전문가

영가천도, 병의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064-746-078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대세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GMR’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포 732-5552

상속한정승인 공고

•성 명 : 망 윤창성(1960. 11. 10생)
•최후주소 : 제주시 서광로29길 25, 101동 301호 (이도일동, 장원월드컵아파트)

상기자는 2021년 7월 29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2년 1월 5일 제주지방법원 2021나단188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만법 제1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제주시 서광로29길 25, 101동 301호 (이도일동, 장원월드컵아파트)
2022년 1월 13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김수연, 윤지영, 윤태영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토지 급매 가격

1) 월드컵경기장 아래 대로변 865평 ★최저가300만원★
2) 강정동 해안도로 200m 근접 바다 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건축가능, 아울렛예정지구 부근, 12m계획도로 진행중, 총 480평 ★평당130만원★
3) 강정동 해안도로 40m 741평, ★평당 200만원★ 펜션 및 전원주택지
4) 강정동 해안도로 접 607평 ★360만원★ 카페 최고부
5) 강정동 해안도로 100m 753평, ★평당 73만원★ 전원주택지, 투자용 최고
6) 강정동 해안도로위 땅 15m 건축 가능, 바다조망 카페용 펜션용 총 376평 ★240만원★
7) 호근동 범선부, 최고 전원주택 360평, ★평당 200만원★ 건축 바로 가능

010-2102-5424 / 010-6275-5200